

2026년 6월 24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연준 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 물가가 관건

6월 FOMC 이후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미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01을 상회하며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6월 FOMC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만큼 관련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달러의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에는 5월 PCE 물가가 발표될 예정이나, 시장의 관심은 7월 중순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와 고용지표에 집중될 전망이다. 연준 역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물가와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5월 헤드라인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근원물가와 임금 상승 압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가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7월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와 고용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70 달러대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가격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며, 주거비와 임금 상승세 둔화 역시 근원물가의 하향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물가의 핵심 변수인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경우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도 진정되고, 달러의 추가 상승 역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이 유효한 만큼 최근 달러 강세를 추세적 강세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원/달러 환율 역시 당분간 1,500 원대에서 등락하겠으나, 향후 물가 안정 신호가 확인되고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될 경우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